

영화 보고 촬영현장 다양한 에피소드도 듣고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토크' '바람의 언덕' '이장' '공동정범' 상영 후 감독·프로듀서 등과 이야기 세월호 6주기 '그날, 바다' '유령선'도 상영중



광주독립영화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개관 2주년 기념 토크'를 오는 29일부터 세 차례 진행한다. 사진은 영화 '이장'의 한 장면.

광주독립영화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영화 감상 후 감독, 프로듀서 등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관 2주년 기념 토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시간은 29일 오후 7시 영화 '바람의 언덕' (2019) 상영 후 열린다. 이날 토크에는 오대승 촬영감독과 이세진 프로듀서, 그리고 스크립터와 촬영팀으로 현장을 누볐던 김신혜씨와 유명상씨가 참석한다.

토크 진행은 영화 '신기록'으로 청룡영화제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 감독과 '바람의 언덕'에서 딸 한희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장선 배우가 맡으며 '바람의 언덕' 촬영 현장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작품은 엄마가 되는 것이 두려워 어린 딸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영본(정은경)이 세월이 흐른 후 성인이 된 딸(장선)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기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이장'의 상영이 끝난 후 진행되는 두 번째 토크는 5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토크에서는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가 '가부장제와의 유쾌한 결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심 대표는 "이장"은 가부장제가 구축한 구조 안에서 개별주체로서의 삶을 박탈당하고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성'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고충을 영화가 잘 담아내고 있다"며 "아직도 한국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심옥숙 대표

변영주 감독

마지막 시간(5월23일 오후 7시)에는 변영주 감독과 김일란 감독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영화 '공동정범'의 상영이 끝나고 마련되는 이 시간에는 한국다큐멘터리를 집중 논의한다. '공동정범'은 용산참사 이후 살아남은 철거민들이 어떻게 상처와 싸우며 살아가는지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김 감독은 2011년 '두 개의 문'에 이어 이혁상 감독과 공동으로 연출한 '공동정범' (2017)을 선보였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변 감독의 '낮은 목소리' 3부작은 내 삶을 변화시킨 작품이다"며 "다큐멘터리가 현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준 가장 생생한 예시"라고 전했다.

이밖에 독립영화관은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이장'을 비롯해 '하트', '기억의 전쟁',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이전 개봉했던 작품들을 이어 상영한다. 또 세월호 6주기에 맞춰 개봉한 '그날, 바다', '유령선'도 상영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재개관한 독립영화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은 입장에 제한을 두며 장애인 전용 좌석 2석을 포함해 총 91석이었던 좌석을 30석(장애인 전용 좌석 포함)으로 제한해 판매한다. 또 극장 내 관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간격을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매주 한차례 전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여성의 물적·정신적 독립의 필요성 설파

여지희 작가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번역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1882-1911)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개척한 20세기 대표 모더니즘 작가다. 그녀는 백 년 전 이미 현대 여성으로 살아갔으며, 자유롭게 진보적인 예술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 삶과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펼쳐나갔다. 특히 '자기만의 방'이 형상화했던 여성의 물적, 정신적 독립의 필요성과 경험의 가치는 오늘날의 인식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울프의 대표적인 에세이 '자기만의 방'은 여성에게 자기만의 공간과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설파한 책이다. 르포르지 선정 세기의 명저 100에 뽑혔으며 페미니스트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자기만의 방'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 울프의 문제의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일상에 매여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거의 주저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며 무엇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작가로서 울프는 내면 의식의 흐름을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렸다. 불확실

과 경험의 가치는 오늘날의 인식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울프는 픽션과 논픽션을 아우르며 다작을 남겼다. 픽션은 언급한 대로 플롯보다는 등장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추구했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 '출항', '제이콥의 방', '달라웨이 부인', '등대로' 등이 있다.

여 역역가는 역자후기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또한 냉철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던 동시대를 꿰뚫고 앞날을 예언한 천재였다"며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을 억제해 온 남성 중심의 문명사회에서 자신이 일반 중산층 여성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처지란 것을 철저히 인지하면서 사회구조와 맞물린 성의 불평등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 '광주예술로' 공모

27일~5월6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20년도 예술인파견 지원사업-광주예술로(路)' (이하 광주예술로) 공모를 시작한다. 광주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주예술로(路)'는 지역 예술인 50명과 기업·기관(마을) 10개소를 매칭, 다양한 예술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더 예술인과 참여예술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예술인에게는 월 120만원~14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리더예술인은 기획과 운영 등을 맡고 참여예술인은 함께 활동을 제안,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으로 나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구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선정

광주서구문화센터는 최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구문화센터는 5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오는 5월부터 ▲문화회관 공연과 연계한 감상교육인 토크콘서트 ▲문화회관 '연Feel' ▲성인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알콩달콩 부부합창'

단' ▲예술인과 주민(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溫(온) 마을 배움터' 체험형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사업별 참가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 활성화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지 '전남 관광 E-뉴스레터' 제작도

전남문화관광재단이 국내·외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최신 관광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제작한다.



제1편에서는 '호텔텔루나', '1987'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영화 촬영지인 관광 거점 도시 목포를 소개한다.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데크길을 감상적으로 다루고, 블로그 등에서 꼭 먹어봐야 할 목포 음식으로 소개된 중간(중화식 간짜장), 새우바게트 등의 먹거리와 속소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에 담는다.

앞으로 진도, 나주, 구례, 순천 등 전남 22개 시·군의 관광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재단은 최신 관광정보를 담은 '전남 관광 E-뉴스레터'를 제작, 국내·외 400여개 여행사에 매월 발송한다. 동일한 패턴의 관광코스로 운영되는 기존의 전남 관광상품 대신, 전남 곳곳의 관광정보의 전달, 여행사의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제1편에는 진도 토요일여행공연, 쏘비지 진도 호텔과 영암의 음식만들기 체험, 왕인박사문화축제 등 새롭게 확충된 전남 관광 인프라와 숨겨진 관광명소가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CGV 극장 29일 영업 재개

광주 금남로·용봉·하남점 포함 36곳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CGV 극장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영업을 재개한 극장은 광주금남로·광주용봉·광주하남점 등 광주지역 3개 지점을 비롯한 전국의 36개 극장이다.

CGV는 24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친 영화산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영업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CGV는 관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자 지난달 28일부터 지역 극장 116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극장 문을 닫았다.

CGV는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상영 회차는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3회차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며 전 상영관이 아닌 일부 상영관만 운영하는 '스크린 컷 오프제'와 앞뒤 띄어 앉기 등도 계속 시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김 동 일 쉼 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헌팅
☎ 062)228-1975, 010-9622-8938

우 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세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 헌팅)
☎ 062)381-0066, 010-3085-0140

광 명 천 막 기 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 가 네 한 우 공 망 광 주 대 인 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길고진한 공양의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 가 한 우 명 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 크 광 주 세 정 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개 성 전 통 한 방 삼 계 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연 아 불 교 용 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옷, 양초 판매
☎ 061)334-0088

천 상 일 월 태 주 명

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퀵 타 로 카 드

지하철 금남로5구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공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만 복 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자 연 모 기 발 안 병 원 헤 어 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허기발발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대 성 각 중 화 반 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